

고현정 “운명같은 작품” 전지현 “레인지 첫 경험”



“지금 정말 행복해요!” 배우 고현정이 13일 열린 JTBC 수목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 | JTBC

“대본 한 장 읽고 하고싶다 생각 상상하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죠”

‘시청률 퀸’들의 귀환이다. 안방극장에서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 해온 배우 고현정과 전지현이 잇따라 주연 드라마를 내놓는다. 13일 방송을 시작한 JTBC 수목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과 23일 첫 방송하는 tvN 토일드라마 ‘지리산’이다. 같은 시기 신작으로 경쟁하게 된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13일 나란히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독특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면서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고현정...“운명적인 드라마 복귀”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여유로운 집안의 남성과 결혼한 화가이자 에세이 작가를 연기한다. 미술교사 역 신현빈과 악연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망을 그려나간다. 치정 소재가 사뭇 자극적이지만, 2019년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 벌’ 이후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나서면서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사실 몇 편의 작품 제안을 받았지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대본)보기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중 이 드라마는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장을 읽었다가 단번에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이번이 아니면 평생 못 할 작품이란 직감이 들었죠.”

SBS ‘대물’, tvN ‘디어 마이 프렌즈’ 등에 이어 시청률 흥행에도 다시 도전한다. 그는 “답답한 시국이라 (무거운 분위기의) 드라마에 몰입해서 보기 힘들 수 있다”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조명하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은 각자의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소한 캐릭터·스토리 그제 장점이 제가 지리산 곳곳을 날아다니요”

“상상하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본 친구와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때?’라며 대화를 나누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지현...“지리산에서 날아다녔죠!”
캐릭터부터 후지 않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베테랑 레인지(관리인) 역할을 맡았다. 산중 의문의 사건을 신입 레인지 주지훈과 함께 파헤친다. 등산객과 금세 어울리는 능청스러운 매력에 톱스타 반열에 들게 한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떠올리게 한다.
“제게는 두 작품 속 캐릭터가 다르게 다가오지만, 털털하고 자기주도적인 여성이란 점에서 닮았어요. 강한 여성상이 돋보이는 캐릭터를 연이어 맡았다기보다 요즘 여성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인 것 아닐까요?”

7월 선보인 넷플릭스 ‘킹덤:아신전’의 대본을 쓴 김은희 작가와 또 다시 만났다. ‘스타’와 ‘스타’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전지현은 “작은 장면이라도 다음 이야기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김 작가의 필력에 새삼 감탄했다”고 말했다.
“드라마 촬영 전에는 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다소 생소한 직업이라 시청자들에게도 이야기가 신선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지리산의 풍광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리산 곳곳을 ‘날아다니는’ 모습에 특히 재미를 겁니다.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전지현이 13일 열린 tvN 토일드라마 ‘지리산’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서 복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의상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음원강자’ 아이유가 돌아온다

7개월만에 신곡 ‘스트로베리 문’ 발표
가온차트서 10년간 ‘최다 1위’ 가수에



‘음원강자’ 가수 아이유가 19일 신곡 ‘스트로베리 문’을 선보이고 흥행을 이어간다. 사진제공 | 이담엔터테인먼트

가요계 음원 최강자 아이유가 돌아온다. 아이유가 19일 디지털 싱글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을 발표하고 팬들 앞에 다시 선다. 그동안 앨범마다 모든 수록곡으로 주요 음원차트를 ‘줄 세우기’한 것은 물론 과거 노래까지 인기 역주행시켰던 만큼 이번에도 흥행 파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3월 정규 5집 ‘라일락’ 이후 7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팬들은 곡 장르 등을 연상하며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아이유는 최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공식 SNS를 통해 잇따라 공개한 신곡 티저만으로 이미 국내외 팬들의 시선을 끌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티저는 영어 신문처럼 제작된 이미지에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뒷모습과 카메라를 든 아이유, “사랑을 이뤄주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 뜬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또 뮤직비디오에서 아이유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신예 이종원과 호흡을 맞춘다.

13일 현재 각종 음원차트에서 ‘라일락’을 비롯해 아이유의 과거 히트곡이 상위권에서 ‘장기집권’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가온차트에서는 그가 지난 10년간 최다 1위를 차지한 가수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온차트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종합주간차트를 분석한 결과, 아이유는 차트 400위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순위를 유지하며 최장 통령 중인 주인공으로 뽐냈다. 특히 2013년 12월20일 선보인 ‘금요일에 만나요’로 무려 7년(367주) 동안 차트 인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오징어게임, 1억1100만 가구 시청 ‘넷플릭스 신기록’

〈오리지널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최단기 최다 시청 ‘브리지튼’ ‘익스트랙션’ 등 다 제쳐 넷플릭스 CEO “가장 큰 작품 될수도”

전 세계 1억1100만 가구가 ‘오징어게임’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오징어게임’은 9월17일 공개 이후 28일 만에 드라마와 영화 등 넷플릭스 역대 오리지널 콘텐츠 최단기 최다 시청 기록을 썼다.

13일 넷플릭스는 이날 현재까지 세계 1억1100만 계정 가구가 ‘오징어게임’을 봤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5일 공개돼 8200만 가구가 시청한 영국드라마 ‘브리지튼’을 넘어섰다. 또 9900만의 영화 부문 1위 ‘익스트랙션’도 제쳤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계정이 2억 9000만여개인 점에 비춰 절반가량이 ‘오징어게임’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유료 계정 1개당 최대 4개 아이디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청 인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징어게임’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 사이트 플릭스파트너스에서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 쇼(프로그램)’에 등극했다. 하지만 이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190개국(지역) 가운데 콘텐츠 소비 순위를 집계하는 83개국만을 대상으로 플릭스파트너스가 자체 가점을 부여한 순위이다. 따라서 넷플릭스 콘텐츠의 실제 시청 규모를 보여주는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 시청 규모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넷플릭스는 역대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 가운데 시청 규모 10위권 작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시리즈 1위 ‘브리지튼’에 이어 2위는 7600만 계정의 ‘윙맨’이었다. ‘워터’ ‘섹스/라이프’, ‘기묘한 이야기 3’, ‘종이의 집’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영화는 ‘익스트랙션’을 비롯해 8900만 ‘버드 박스’, 8500만 ‘스펜서 컨피덴셜’ 순이었다.

‘오징어게임’의 이 같은 성과는 최근 예측됐다.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드스 공동 CEO가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선보인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민영 넷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역대 오리지널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작이 될 것이라고 관측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총괄은 이날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5년 당시 세계적 수준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는 게 목표였다”면서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예능돌’ 이미주·부승관 눈에 띄네!

〈러블리즈〉 〈세븐틴〉

이미주, ‘놀면...’ ‘식스센스’ 종횡무진 유재석 “희극인 후배 못지않다” 칭찬 부승관, 컴백 때맞춰 예능서 끼 발산

결그룹 러블리즈의 이미주와 그룹 세븐틴의 부승관이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며 눈길을 끈다. 무대 위 카리스마 대신 친근한 매력을 뽐내면서 출연 프로그램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미주는 MBC ‘놀면 뭐하니?’의 새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다. 방송인 유재석, 하

하, 정준하 등 과거 ‘무한도전’ 멤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 갑자기 흘러나오는 음악에도 당황하지 않고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웃음을 자아낸다.

그는 최근 시즌2를 종영한 tvN ‘식스센스’ 시리즈에서도 톡톡 튀는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전소민, 제시 등 개성 강한 출연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희극인 후배 못지않다”며 그의 예능 감각을 눈여겨본 유재석이 ‘놀면 뭐하니?’에도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이미주 부승관

알려졌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는 2021 브랜드대상 예능돌 부문을 받았다.

부승관은 배드민턴을 소재로 해 11일 첫 방송한 tvN ‘라켓보이즈’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대표 출신 이용대 감독도 “수준급”이라며 놀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과시해 단번에 ‘에이스’로 떠올랐다.

13일 연출자 양정우 PD는 “출연자 섭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연락한 연예인”이라면서 “바쁜 스케줄에도 주 4~5회 연습하는 열정과 높은 집중력,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소속된 세븐틴의 22일 컴백을 앞두고 최근 홍보를 위한 예능프로그램 출연도 찾아졌다. SBS ‘미운 우리 새끼’,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게스트로 출연해 녹화를 마쳤다.

그는 MBC ‘웃찾하의 Q’, tvN ‘호구들의 감빵생활’, 채널S ‘잡동산’ 등을 통해 이수근, 정형돈, 강호동 등 베테랑들과 호흡을 맞추며 예능 감각을 키웠다. 재치 있는 입담과 차분한 진행 실력으로 그룹 자체 콘텐츠인 ‘고잉세븐틴’의 진행자로서 최대 300만 조회수를 끌어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프로포폴 투약 취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취성(최희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5부(감정열 부장판사)는 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취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투약량이 적지 않고, 연예인으로 대중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사회봉사를 통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옥주현·김동욱·윤계상 등 ‘SNL 코리아’ 출연

가수 옥주현, 배우 김동욱, 윤계상, 조진웅 등이 ‘SNL 코리아’에 차례로 출연한다. 쿠팡플레이 측은 13일 “이들이 차례로 호스트로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코믹한 매력과 특유의 유쾌함까지 더해 ‘SNL 코리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은 16일 옥주현이 출연하는 7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밤 10시 쿠팡플레이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효리 11월 열리는 MAMA 호스트 맡는다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다음 달 11월 열리는 엠넷 아시아인 뮤직 어워즈(MAMA)의 진행자로 나선다. 엠넷은 13일 “이효리는 올해 MAMA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있는 독보적 인물”이라고 선정 계기를 밝혔다. MAMA는 CJ ENM이 개최하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으로, 2010년 마카오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의 다양한 도시에서 열려왔으나 감염병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에서 진행된다.